

돼지오제스키병 남양주군에서 또 발생

- 방역당국 정밀 혈청검사 진행중 -

작년 12월 17일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했던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 일대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양성돈이 또 발생한 것으로 양돈업계에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었다.

방역당국이 9월 중순경 이 지역에서 14개 농장 46두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바, 이 중 극히 일부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농장에서 몇마리가 양성돈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혈청검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보다 정확한 발병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 지역 양돈 3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800여 두 전체에 대해 정밀 혈청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난 여름이후 양돈인들 사이에 끈질기게 나돌던 이 지역의 「돼지오제스키병 발병설」은 곧 그 진위가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양돈인들 사이엔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와 화도면 마석리 일대의 몇개 농장에 돼지오제스키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발병농장에서는 이를 감추고 몰래 도축장에 출하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확인되지 않았었다.

양돈농가들은 「작년 12월 이 지역에서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후 관계당국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결과 이제야 나타난 것이 아니냐」며 「이제라도 이 지역의 돼지 이동 상황 등을 추적해 혈청검사를 하는 한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역당국에서는 금년초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지역 양돈장에 대해 혈청검사를 시도했으나, 양돈농가들이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 혈청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양돈업계 입장에서 보았을때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을 폐쇄한 후부터 양돈농가로 부터 한건의 신고도 없었다」며 양돈농가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여하튼 정부는 양돈농가들의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관심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혈청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멸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취재 : 김 동 성〉